

한국 아동들의 행복 격차



Happiness Inequality in Korean Children

유민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제적 순위에 초점을 맞춘 평균적인 아동의 행복도 비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반해, 국내에서의 격차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의 아동 행복도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행복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간단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전반적인 행복도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고, 개인의 성취 만족과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에서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아동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는 행복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행복도의 하위에 있는 대상들의 행복도를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행복도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행복도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은 “우리 아이들: 위기의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 미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환경과 기회의 격차를 만드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Putnam, 2016).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기 삶의 질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퍼트넘이 발

견한 미국 사회의 아동기 삶의 질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는지 모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염유식, 김경미, 2018; 이봉주 외, 2019; 김미숙, 2015; 류정희 외, 2019).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종합기본계획이나 청소년종합기본계획의 최상위 목표를 아동·청소년의 행복으로 설정할 만큼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언할 뿐 아동기 행복의 격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실질적인 아동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을 넘어서” 이들의 삶의 현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기 삶의 질 격차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행복 격차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행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분석 척도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과거의 조사보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지표들이 보완되었다. 주관적 웰빙 지표는 인지적 측면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 측면의 부정적 정서와 긍

정적 정서 등으로 구성되며,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 주관적 웰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관적 안녕감 혹은 주관적 행복감 등의 용어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행복으로 개념 정의 하였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HBSC(Th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에서 활용되고 있는 캔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 척도를 국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형태로 수정하였고,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 어제의 행복, 어제의 걱정, 어제의 우울, 자신의 일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문항을 추가하였다(Currie et al., 2014; OECD, 2012). 여기에 Cummins와 Lau(2005)가 제안한 학생 개인 웰빙(PWI-SC: personal well-being scale for school children) 척도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 개인 웰빙 척도(PWI-SC)는 건강, 학교생활, 이루어 온 것(성취), 인간관계, 안전, 동네,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 등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영역에 대해 나누어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고, 척도들 역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객관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조사가 보완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

가.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행복도 비교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HBSC 연구의 캔트릴의 사

다리 척도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나 일반적으로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결과를 아동의 행복 수준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캔트릴의 사다리 척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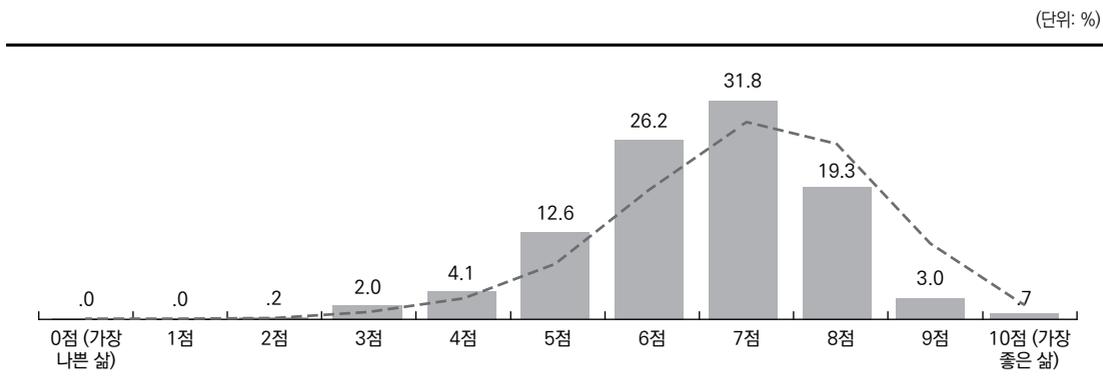
(여기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	10	가장 좋은 삶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가장 나쁜 삶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들의 응답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일반적으로 경제 선진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중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아동들의 행복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역시 6점 이상의 긍정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동 다수는 “행복한 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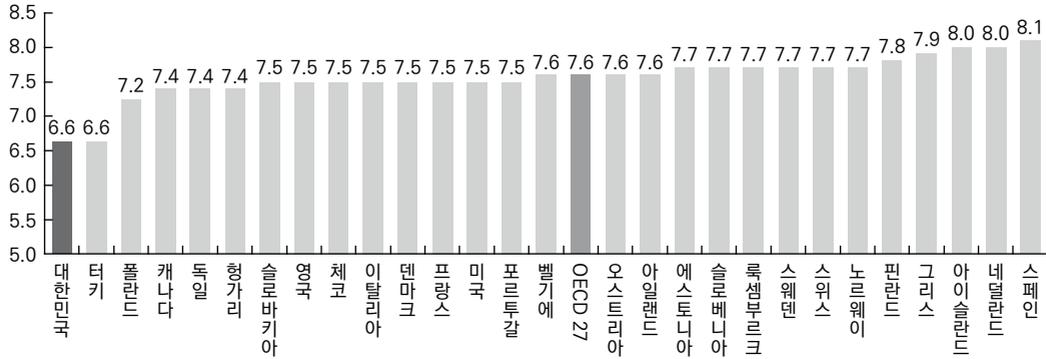
그림 1. 전반적 삶의 만족도(캔트릴의 사다리)의 응답 결과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그림 2. OECD 회원국 아동들의 행복도 국제 비교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칸트릴의 사다리) 평균

(단위: 점)



주: 1) OECD(2015)의 [그림 4.32]에 한국 점수를 추가하여 재도식화하였음.
 2) OECD(2015)의 산출 방식과 같이 11세, 13세, 15세 아동의 결과 값으로만 비교를 진행하였음.
 자료: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42, 그림 13-1 재인용.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OECD(2015)의 How's Life에 제시된 아동 행복도의 결과에 우리나라의 결과를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낮은지 쉽게 알 수 있다. OECD 평균이 7.6점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6.6점으로 터키와 함께 맨 마지막 순위에 위치해 있다. 스페인 8.1점, 네덜란드 8.0점, 아이슬란드 8.0점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1.5점가량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부정적 응답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긍정적 영역 쪽으로 이동해야 할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들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게 더 행복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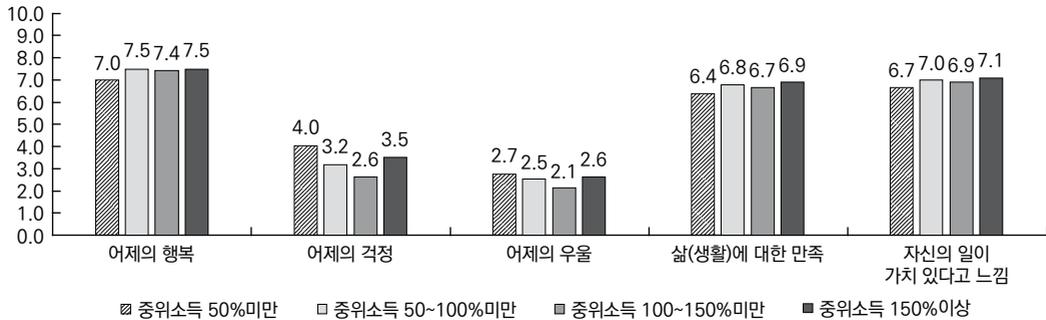
나. 우리나라 아동기 행복 격차

1) 일상에서의 행복(어제의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 일의 가치)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아동 행복도 차이는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파악한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빈곤 가구 파악 등을 위하여 가구소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범주는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중위소득 150% 이상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4개 집단의 행복도 응답 결과를 차례대로 비교할 것이다.

그림 3. 일상에서의 행복 문항의 가구 소득 배경에 따른 차이

(단위: 점)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가장 먼저, 일상에서의 행복 정도를 묻는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의 문항의 응답 결과를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제의 행복, 어제의 걱정, 어제의 우울, 요즘의 삶의 만족 정도,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모두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집단들이 소득에 따른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중위소득 50% 미만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응답(행복, 만족, 가치)은 낮고 부정적 응답(걱정,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신이 하는 일(혹은 공부)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이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을 감안하면, 일상에서 느끼는 자기 삶에 대한 평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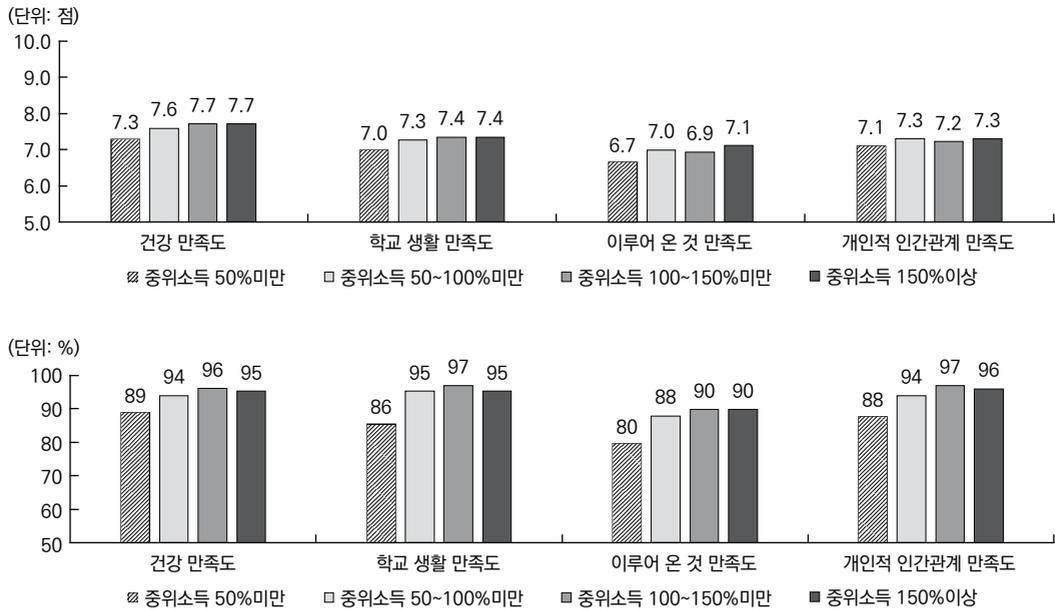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느낌에서도 소득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

다음으로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를 살펴보기 위하여 Cummins와 Lau(2005)가 개발한 학생 삶의 만족도 척도(PWI-SC)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0점-10점)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평균 점수와 6점 이상 아동·청소년의 비율 등 두 가지로 분석한 것이다. 6점 이상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앞서 살펴본 0점과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보여 줌과 동시에 6점 미만 아동 비율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 학교생활, 이루어 온 것(성취), 인간관계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평균 점수

그림 4. 삶의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1(평균 차이, 6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차이)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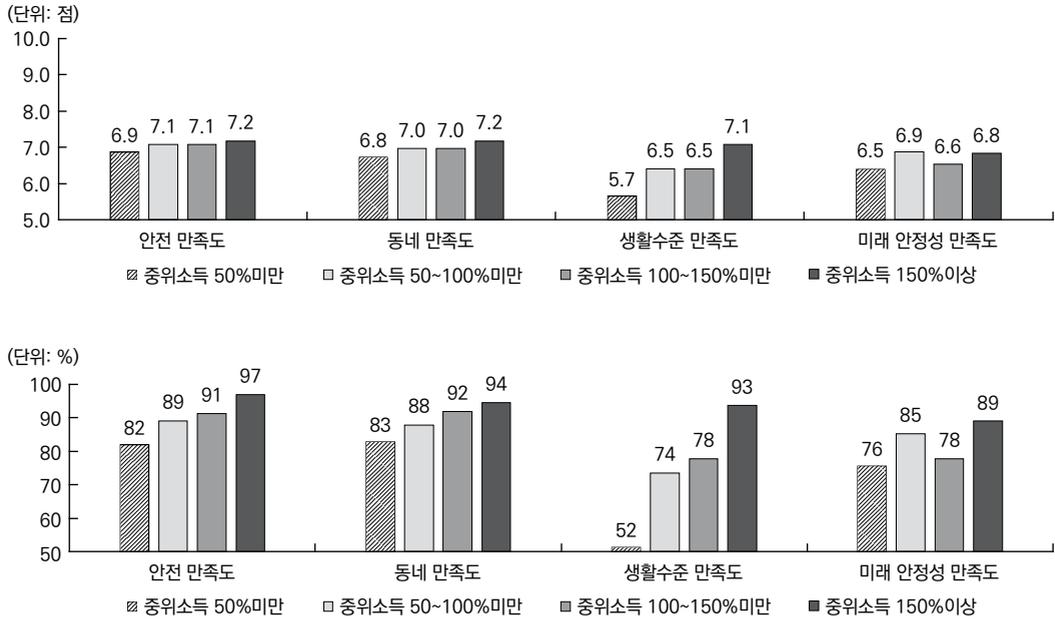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에서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이 다른 집단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만족도를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보다 분명해진다.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아동에 비해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에 대한 만족도, 즉 자신의 성취에 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이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 만족도, 동네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미래 안정성 만족도의 결과 역시 앞서 살펴본 영

역별 만족도 결과와 유사하다.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은 모든 만족도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만족도, 동네 환경 만족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활수준 만족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성취 만족도와 유사하게 미래에 대한 만족도(구체적으로 자신이 미래에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만족도)에서 소득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삶의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 2(평균 차이, 6점 이상 응답한 비율 차이)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다.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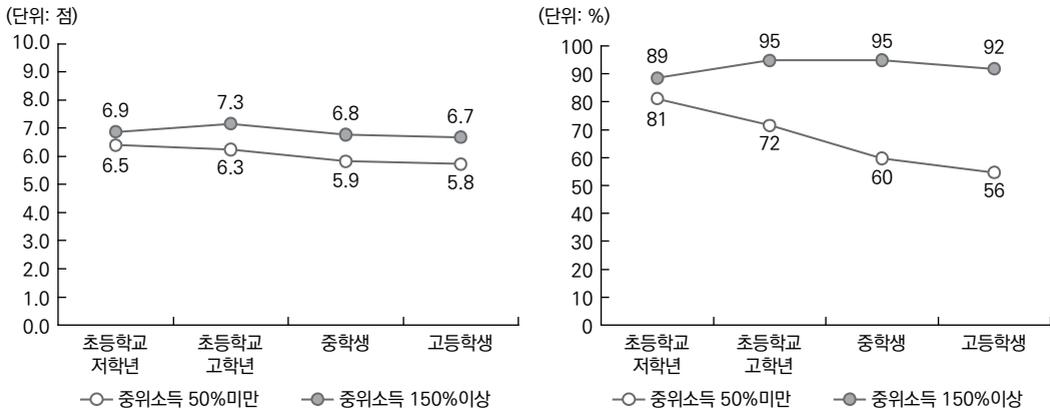
여기서는 칸트릴의 사다리 척도와 PWI 척도를 종합하여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행복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 바 있다(González-Carrasco, Casas, Malo, Viñas, & Dinisman, 2017; 이봉주 외, 2017).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동들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학교급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 글은 횡단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종단적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먼저 칸트릴의 사다리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된 결과를 중위소득 50% 미만 집단과 중위소득 150% 이상 집단으로 나누고,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그림은 삶의 만족도의 평균 점수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격차가 고등학생의 차이로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림

그림 6.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차이(평균, 6점 이상과 미만 차이)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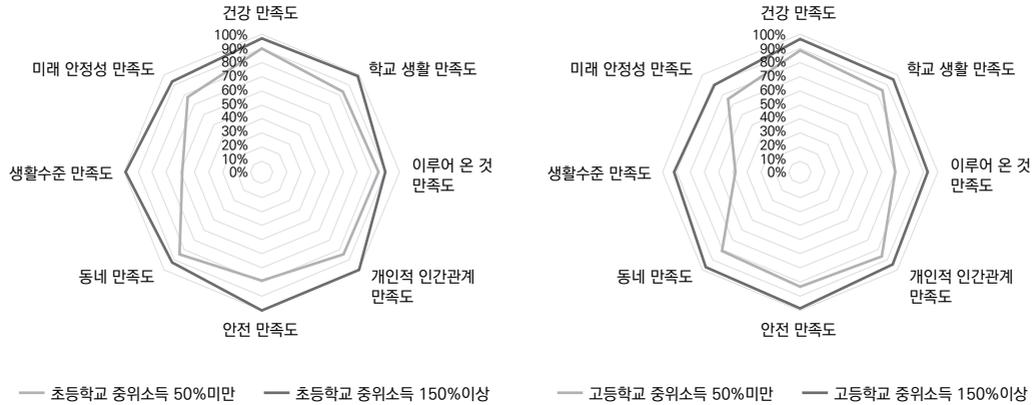
은 삶의 만족도에서 6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로 중위소득 150% 이상 집단은 학교급이 올라가면 서도 만족도가 6점 이상 되는 아동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중위소득 50% 미만 집 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러한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삶의 중요한 영역 중 어느 영역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의 스파이더웹 그래프(방사 형 그림) 는 건강, 학교생활, 이루어 온 것(성취), 인간관계 만족도, 안전 만족도, 동네 만족도, 생

활수준 만족도, 미래 안정성 만족도 등을 각 꼭짓 점으로 하여 6점 이상의 비율이 표기되어 있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만족도 차이를 보 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 만족도, 생활수 준 만족도, 미래 안정성 만족도 등에서 격차가 드 러나고 있고, 특히 생활수준 만족도와 미래 안정 성 만족도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격차 가 유지되면서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한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비해 이 루어 온 것에 대한 만족도(성취에 대한 만족도)의 격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이루어 온 것에 대한 만족(성 취에 대한 만족)과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구의 사 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등의 성취 정도 차이,

그림 7.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역별 만족도 차이(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비교)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미래 삶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행복의 차이가 비단 현재 삶의 수준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아 왔던 역량과 성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복은 오늘의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아동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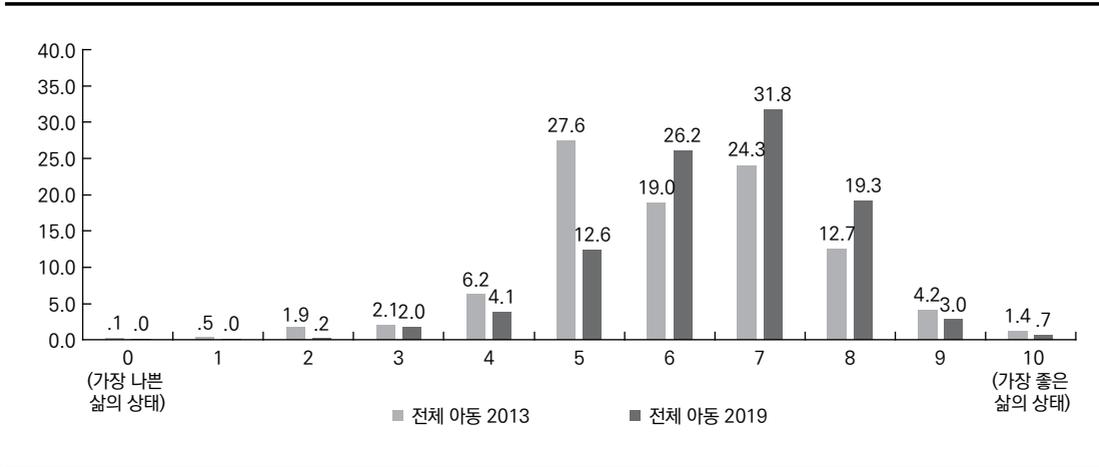
4.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 격차: 2013, 2019년 비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도 조사와 2019년도 조사에서 캔트릴의 사다리(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 문항은 HBSC의 동일한 문항을 번역한 것으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사다리 모양의 예시를 추가하는 등의 미시적 수정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질문 구조와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된 것은 동일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가 증진된 것

그림 8. 사회경제적 배경과 행복 격차(2013, 2019년 비교)

(단위: 점)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으로 보이며, 특히 척도의 중점(5점)에 몰려 있었던 2013년의 결과가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6~8점대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척도에서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산출하면 2013년에 비해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균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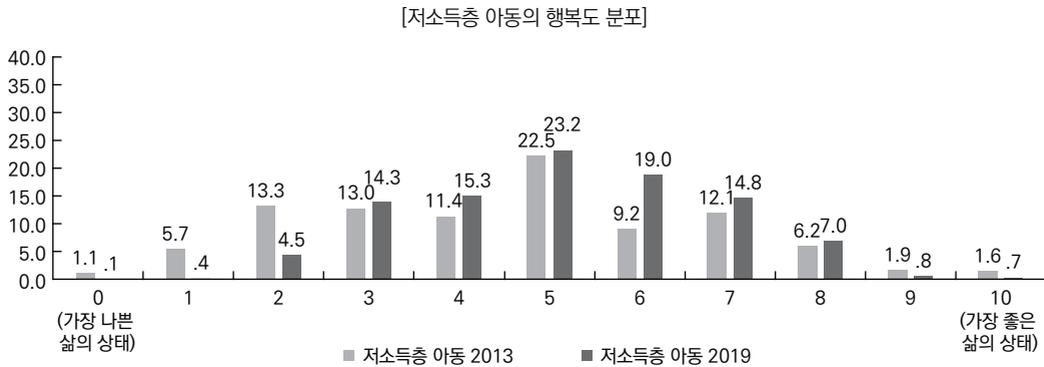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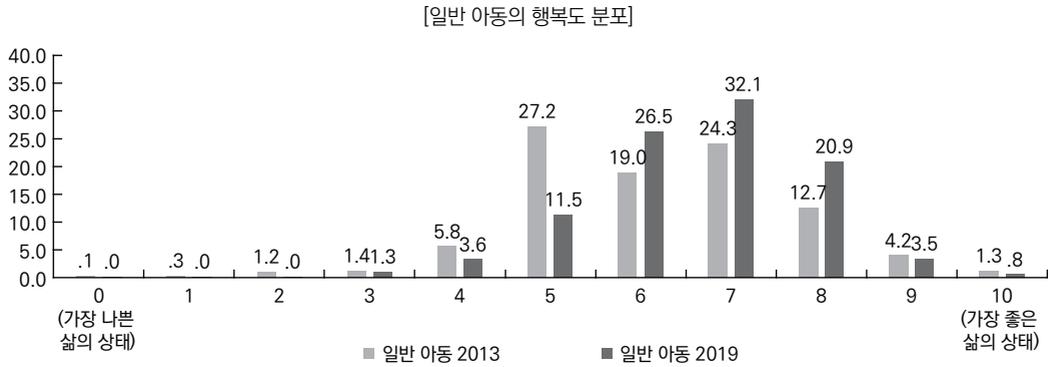
다음으로 2013년과 2019년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2019년으로 이동하면서 일반 아동(비빈곤 아동)의 행복도는 전체 아동의 행복도와 유사하게 5점에 몰려 있었던 아동들이 6~8점으로 이동하면서 행복도가 증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상당수가 척도의 우측에 몰려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

다. 저소득층 아동의 행복도 결과에서도 개선된 점이 나타난다. 삶의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 0~2점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삶의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6~7점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는 빈곤 아동의 행복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아동의 행복도는 낮게 나타난다. 3~5점으로 응답한 빈곤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비율은 2013년과 2019년이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체적인 아동행복도가 개선되는 추세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아동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나의 삶이 나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이다. 아동기 행복 격차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9. 사회경제적 배경과 행복 격차(2013년, 2019년 비교, 빈곤·비빈곤 아동 격차)

(단위: 점)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원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원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분석한 결과임.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기 행복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삶의 질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문화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배

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의 격차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중요하다” 식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격차가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복합적으로(혹은 누적적으로) 결합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물질적으로 누리

는 환경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 사회적 관계의 질, 차별 경험, 폭력 경험, 사회적 성취 및 참여 기회 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단지 행복도의 평균 점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엇이 아동들의 행복 수준을 저해하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에 대한 만족(성취에 대한 만족)과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행복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도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성취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성취의 차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삶의 기회 등이 불균등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기대할 수 없는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의 문제가 미래 청년기로의 전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청년기 이후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동기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수집된 자료들의 경향을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최근 10년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염유식, 김경미, 2018;

유민상, 2019;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 내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보호 체계 개선, 학교에서의 교사 체벌 금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상담 시스템 마련, 학교 무상 급식 프로그램 확대,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학업 부담, 부족한 수면 시간과 여가 시간,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자유 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 선진국들 중에서 아동들을 행복하게 키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행복 격차를 줄이는 길은 더욱 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격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으로 배제된 아동·청소년(장애 아동, 가정 밖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배경 아동, 성소수자 청소년 등)의 행복 격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없어 분석조차 할 수 없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행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아동 행복도 증진을

위하여 노력했듯,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는 “평균을 넘어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행복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행복도의 하위에 있는 대상들의 행복도를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에 대한 행복도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행복도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아동의 삶이 중요하다. 罍

참고문헌

-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0호, 14-26.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염유식, 김경미.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민상. (2019).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변화하고 있는가?” 2019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박호준,...김윤지. (2017).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III.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박호준,...차은호. (2019).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IV.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ummins, R. A., & Lau, A. L. (2005). 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 Deakin University.
- Currie, C., Inchley, J., Molcho, M., Lenzi, M., Veselska, Z., & Wild, F. (2014).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protocol: background, methodology and mandatory items for the 2013/14 survey.
- González-Carrasco, M., Casas, F., Malo, S., Viñas, F., & Dinisman, T. (2017). Changes with age i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the adolescent years: Differences by gend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1), 63-88.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 OECD. (2012).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 Putnam, R. D. (2016).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imon and Schuster.